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 변화추이 분석

안 소 현 · 이 경 희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Analysis of the Transitional Aspect of Gender expressed in the Later 20th Century Fashion

Ahn-So Hyun · Lee-Kyoung 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1.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eply understand the transitional concept of gender expressed in the later 20th century fashion through analyzing of various literature. Gender is 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culture different than sex which is inherent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Thus the concept of gende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 of social and culture.

There are imposing changes in gender since 60's owing to various factors; namely, feminism, subculture, deconstruction, development of technology, market economy, changing sex roles, etc. Especially in the 60's to 70's, as radical changes were took place, gender became vague more and more. Finally these days there is no fixed gender. In terms of meaning, there may be a number of genders—since there are as many meanings of sex as there are people who have thought about it. That is, sex is, gender means. Sex exists in itself, and is sublimely indifferent to what humans think of it. However gender is all the meanings we assign to sex. In accordance with this phenomena, people don't mind their sexes with appearance. There is only different disposition and taste.

Key words: gender, transitional aspect, changes of social and culture;
성 개념, 변화추이, 사회·문화적 변화

I. 서 론

의복태도와 그에 따른 의복선택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지적, 행동적 현상으로써 의복관련 행동은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시대정신 및 문화를 반영한다. 즉 의복은 시대를 반영하는 표 현문화로서 개인의 문화체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은유이기 때문에 문화내의 가치관, 상 호관계, 의미 등을 나타내고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의복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은 시대상황과 문화적 맥락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패션의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한 '젠더리스(genderless)'는 21세기 사회는 인종과 성,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 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요구된다.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바이섹슈얼리티 (bisexuality) 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1,9-10에서 의외의에서의 양성화 경향이 연구되고 있으나 성 개념의 변화와 의복과의 관련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에 있어 성 개념의 변화양상을 시대정신 및 문화현상과 관련하여 파악해 보고 성 개념의 변화가 의복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II. 성 개념(Gender) 변화 요인

'gender(masculine: feminine)'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sex(male: female)'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남녀간의 사회적 의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성역할 등을 관련한다2. 성역할 개념(genderlogy)은 개인이 성과 관련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정도로서 진정한 성역할 개념과 이를 부정하는 평등한 성역할 개념 차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데 성역할 차이는 의복 및 의료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녀간의 성역할 차이가 줄어들면 의복에서도 남녀간의 성차가 줄어들게 된다3.

개인의 성정체감은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대로, 특정 성, 흔히 동일시하는 성역할 정체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4. Myra Jehlen은 성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라 할지라도 생물학적 성 차이와의 단순한 관계 하에서 사회적으로 완성된다고 하였다5. 즉 신체적인 것 또는 생물학적인 것에는 인간생애에 제한을 가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격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성별관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6. 그러나 남녀의 실제적 차이를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자연적 성차인 섹스보다는 성역할 사회화과정8에 의한 성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문화현상을 대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괄함으로서 모든 양식과 주제에 대한 열린 태도를 견지하여 다양한 요소를 한 단위 안에 혼합한다. 이러한 맥락은 양면적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성 개념과 관련된 양면적의 표층은 남성적인 이미지와 여성적인 이미지의 요소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8. 즉 기존의 성 고정관념에서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대립과도 속에 놓여 있었지만 오늘날 남녀간의 힘과 속도의 차이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여성의 사회적 가치가 당연시되면서 성격 고정관념의 존재이유가 사라짐에 따라 한쪽 성에 비해 작한 모든 특성이 다른 성에게도 비슷함으로 여겨져 양성의 특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성 개념에 변화를 초래한 영향 요인을 페미니즘, 하위문화, 헤파우드, 테크놀로지의 발달, 후기자본주의의 하와 시장경제와 관련시키며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들 요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I.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권연장, 여성해방운동, 남녀평등주의 등 여성의 권익을 찾아 성차별을 탐탁하게 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그 시초는 Mary Wollstonecraft가 《여권운동론》에 발표한 1792년8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후 20세기 초에 이르러까지 계몽철학자와 자유평등사상에 입각한 인문주의적 페미니즘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성에게 역할을 가하는 구조적 모순자체를 진단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9. 20세기에 들어와 1차 대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1913년의 국제페미니즘대회10, 1920년의 미국의 여성참여권진수11 등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20년대에 초래된 여권운동의 끝, 30년대의 대공황과 금전주의성상, 2차대전 이후의 노동계상황, 50년대의 남녀이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현실인 여성학의 발전에 관한 보수주의12 등으로 인해 여권운동은 후퇴가 불가피하였다13.

그러나 1960년대에 점어들면서 수영연장, 육아기
간의 단축 등으로 라이프사이클에 변화가 생겨 가정생활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 중산층 여성들의 자녀로 형제의 사회진출이 늘어남고, 백혈병, 인공授卵, 체온, 허파 등과 같은 저항력이 출현으로 피마취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또다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70년대까지의 피마취운동은 성적 차별의 권력관계의 측면에 주목하는 유물론적 패미니즘과 본질적인 성적 차별을 주장하는 긍정적 패미니즘으로 대별된다. 유물론적 피마취는 여성성을 역사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비고정적인 성질도 간주하며 여성과 남성이의 동질성 혹은 차별성에 초점을 둔 논의자체를 거부한다. 성리적 성에 부과된 사회, 문화, 성리적 경험의 축적이 성을 규정한다는 유물론적 성 이론은 성의 문제를 남성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남성도 사회적 구조물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법론적 성인성을 보다 균질하게 한다. 반면 긍정적 피마취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최소화시킨 양성문화의 지향으로부터 남성문화를 여성문화로 대체시키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여성의 성리학적 본질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힘을 인정하는 모순을 내다. 70년대 여성임을 찬양하는 예로터시스템은 이러한 긍정적 피마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성적 차별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60~70년대 피마취는 성의 관계가 힘의 관계임을 폄하하거나 남녀평등을 주장함으로써 논의의 땅이을 추구했을 뿐 성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비해 포스트모던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한 1980년대의 포스트모던피마취는 구조적 모순과 타자로서의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설득력을 얻게 되어 새로운 여성의 시대를 열었다.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의문시하고 저항하며 서구문화를 주도한 남성중심의 이성주의적 담론의 해체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던피마취는 평등의 추구보다는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다시 차이를 용호하는 본질주의와 차이를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해체주의로 구별된다. 본질주의의 해체주의들은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성을 대두시키고 여성특유의 경계에 의거하여 차이를 개념화한다. 반면 해체주의의 페미니즘들은 남녀비분명을 해체함으로써 성 차를 무효화하고자 대립함을 이루는 각 항목의 문제성을 거부하고 자연적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시선을 돌려 남녀 공간의 인혁이,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해 나간다. 성을 전천적으로 추구한 다른 존재들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관계로 볼면서 차이가 본질적이 아닌 것을 주장한다. 이는 성차별 차례보다는 그 차이를 알고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종합하는 것이므로 1970년대 예로터시스템으로 통해 성차별주의를 찬양하던 피마취운동은 남녀차별이 단일의 대립구도 속에 접어넣는 태도를 거부하는 양성을 통해 성차별주의의 극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때 피마취 운동은 권력의 상징이나 권력 자처를 해체시키고 남녀 모두를 위한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남성이나 여성의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는 인간으로서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피마취의 전개과정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의복의 양성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2. 하위문화

하위문화는 원래 모더니즘시대에 대중소비문화의 변경에서 쫓겨 경향스탈의 일종으로 반문화의 중심을 형성한 아방가르드 운동이었으나 영향력 있는 세력을 형성하는 못한 주변 문화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시대에 접어들면서 하위문화는 각지 영향을 거버넌 통합적 자유와 자기정체성으로 충만한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에서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 이때 따라 저매체문화에 대한 저항을 근본적으로 유형자체를 거부하던 하위문화스탈은 8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폐쇄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테디보이즈, 모즈, 하이데 등 많은 청소년 하위문화집단들에서 남성의 성 관념에 대한 부정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평소에 이르러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시화 되었고 80년대 중반 이후 뉴웨이브 페션가 주류를 이루면서 글리터 투커들이 남녀 복식을 자유롭게 차
신의 개성을 따라 혼합하여 입으면서 앤드로지니스 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동장한 모즈는 점차된 외모에 세세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하류층의 대 표적인 빌디들로서 초기에는 남성에 극한된 하위문 화였지만 여성에게도 급속히 번져 유니섹스 스타일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60년대 중반 중산층 빌디비럼세대가 기성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에 반발함으로서 나타난 하위문화는 다양한 대중문화의 통합적 형태로서 그들의 자유로운 성 의식은 남녀가 같은 복식으로 일체화된 공동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자극적 역할을 하였고 장별과 불루진에 대한 예호는 외모의 혼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낼었다. 70년대 후반 빌디성소년들의 지명적 하위문화인 킨크는 풍요에 관한 악습이 산발적이며 인해한 현실의 절망적 상황사이에서 갈망하게 되는데 남녀구별 없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을 비정상적인 행위, 지나친 메이크업, 과상한 의상, 독특한 머리염색과 스타일 등을 통해 나타낼으므로 기존의 성 관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지배적인 부르주아 가치에 대해 의식적인 대립을 표현하였다. 한편 여성운동가들은 60년대 초에는 미니스커트와 이짓트허스 스타일을, 60년대 말에는 학생운동의 반문화적 특성을 체택하였는데 이는 반사적·반문화적 의상을 통해 기성문화에 반항하는 젊은이들의 하위문화스터 일을 형성하였다. 이들이 창작한 바지류,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 자수 같은 건, 슬리퍼, 낮은 사각형의 구두 등은 캐주얼 아이템으로 성장화되면서 의복에서의 성 차를 줄여들이기 기여하였다.

Vivienne Westwood의 거리 패션과 Rei Kawakubo 등의 인류를 무시하는 전위적인 하위패션도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함과 동시에 그에 대치하는 문화적 민주주의의 풍미를 갈애했는데 이는 하위문화의 성장의 본원이다. 이들의 작품 역시 일본 디자이너들의 해체패션에서 나타나는 반여성성46은 성의 모호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사구사회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백마에 따라 동성애자를 하

나의 하위문화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동성애집 단에서의 의복과 외모는 파트너 선택이나 집단내 의사소통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들의 의복은 새로운 유행으로 창조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하위문화는 기성사회의 관습을 거부 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성 개념에 따른 의복을 부정 하는 방법으로 주로 채택하였는데 이들의 독특한 문화와 복식은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 개념 변화에 일조를 하였다.

3. 해체주의


즉 해체주의는 남성/여성, 정신/육체, 문화/자연, 이상/삼망 등 이론범죄 대립을 근본개념으로 하는 루스코온중심주의적 현대학과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음을 창조하는 것이다. 타자 수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감색의 해체주의에는 전통적 논리란 있을 수 없고 끝없이 염려되어 자립방향을 하므로 남녀라는 이론은 남자 속 여자여, 여자 속 남자라는 내적 차이로 해체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 민주주의의 내적 건강 또는 양면가치의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라는 성의 하위문화로 폐쇄를 나누는 이론이 사라지고 양쪽 성을 공유하거나 이상의 복식을 창작한 양상적 이미지의 복식 및 성을 배제한 중분성적 이미지의 복식49가 나타나게 된다.
4. 테크놀로지의 발달

50년 전에 비해 정자수만 반이 줄어든 1996년의 의학보고* 이후 199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백기를 이용하여 복제 양 “Dolly”를 탄생시킴으로써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현재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인간복제가 금지** 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성인들이 남성의 도움 없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들의 파라다임 전환이 불가피하게 해져 결국 남성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래에 더 강력한 과학을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과 협동을 해야만 할 입장에 처해 있다****. 또한 생활전반에 걸쳐 기계화가 진행됨으로써 더 이상 남녀간의 육체적 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되어가면서 남녀간의 성력적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타구나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반대 성으로의 변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1970년 이후 출생자에게 있어 성 차단 결코 분명한 것이 아닌지***.

한편 Hebdige는 하위문화집단의 저항을 규제 혹은 지배에 대한 인간적 자유와 창조성의 주장으로 간주하더라도 그러한 저항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형성된 지배적인 매스미디아 혹은 문화산업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문화산업은 다양한 하위문화 요소들을 결합없이 받아들여상용화하는데 하위문화 스타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화됨으로써 처음에 지녔던 저항적·의식적 의미는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서 표준화되어 지배적 문화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90년대 이후 VTR, 위성방송,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전통적 인 성 개념이나 성역할에서 벗어난 하위문화집단의 인물을 묘사하는 영화나 성 개념이 파괴된 의복형태를 보여주는 라커나 패션쇼에 의속해 있는 이들에 있어 성 개념이 과거와 달리 모호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의복을 통해 정치적 호소를 하겠다는 개념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초래된 생활과 사회방식의 전환이 특정 성(sex)과 관련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모호한 성 개념의 당위성을 생성해냄으로써 복잡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5. 후기자본주의 사정경계

하위문화는 비판적 문화운동이지만 다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복잡산업의 이윤논리와 결합할 때 사물 그 본래의 의미는 혼란, 변형 되어 퇴색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볼지 않은 문화론적 차원만은 실제의 복잡에 대한 일반적 분석으로 설명력이 부족하다.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상품화 문화론이 되어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소비를 생산보다 중시하며 관심의 대상이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비전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 대개의 경우 비전적적인 것은 감성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앞지르게 되는 것이 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지고 매스미디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생활방식이 점차 횡向社会화하는 대중소비사회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되어 하위문화소요였던 양성성이 횡向社会화된 패션을 거부하며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되었다. 즉 대통령소량생산을 통한 이윤추구를 위해 상품이 미지의 결합없는 교체를 필요로 하는 후기자본주의와 패션의 절충주의에 의해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스타일과 형태는 그 내용을 박탈하고 단지 소비자 유혹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특별한 길이가 없고 독자적인 내적 진화가 요구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들에 표현된 양성적 요소는 단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 자들도 사용가치가 앞서면 과거는 달리 적절 고려 나 단순한 재미, 호기심, 새로운 그 자체에 더욱 끌 리게 됨에 따라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도 양성적 요 소를 즐기게 되었다. 즉 시장경제는 어떤 필요와 새 로움에 대한 욕망, 끓여지는 차별성과 즉각적 만족 등 을 끌임없이 창조하도록 요구하는데 페미니즘은 이를 표 충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좋은 상품으로 이를 통 해 기존의 성 개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성 개념 변화 요인을 <표 1>에 정리하였 고 이들 변화요인간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 에 제시하였는데 60~70년대에는 페미니즘과 하위 문화의 영향력이 보다 컸던 반면 20세기 후반으로 갈 수록 데크놀로지의 발달과 후기자본주의 경제논리 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III. 20세기 후반 채선에 나타난 성 개념

20세기 후반 채선에 나타난 성 개념을 중심으로 60년대 이후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60년대의 복식

1960년대는 젊은이문화가 서서히 채선의 일부로 대두되고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이 혼합되어 나타나

<table>
<thead>
<tr>
<th>페미니즘</th>
<th>하위문화</th>
<th>해체주의</th>
<th>데크놀로지의 발달</th>
<th>후기자본주의 시장경제</th>
</tr>
</thead>
<tbody>
<tr>
<td>정의적 의미 강화 (타로서의 가치주장)</td>
<td>지배문화에 대한 저항 정의적 성향 변</td>
<td>전체 문화의 해체</td>
<td>• 생활전반에 걸친 기계화로 육체적 힘의 차이 감소</td>
<td>•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앞지름으로써 미적 고려, 단순한 재미, 호기심, 새로운 자체에 끌려 정치적 의도 없이도 양성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토대 제공</td>
</tr>
<tr>
<td>유물론적 페미니즘: 성적 차별의 진력</td>
<td></td>
<td></td>
<td>• 메스티져, 문화산업 발달로 각종 하위문화 요소들의 상품화, 대중문화 실현</td>
<td>•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앞지름으로써 미적 고려, 단순한 재미, 호기심, 새로운 자체에 끌려 정치적 의도 없이도 양성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토대 제공</td>
</tr>
<tr>
<td>관계적 측면에 주목</td>
<td></td>
<td></td>
<td></td>
<td>대중소비사회(대량생산과 대량소비)</td>
</tr>
<tr>
<td>급진적 페미니즘: 본질적인 성적차별 부정</td>
<td>기생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정 내포</td>
<td></td>
<td>다중 소망성산</td>
<td>하위문화요소의 상업화 시작</td>
</tr>
<tr>
<td></td>
<td>하나의 페미니즘 요소로 동장</td>
<td>해체패션, 스타트 패션, 동영상요소 등</td>
<td></td>
<td>하위문화요소(양성성)의 상업화 실패</td>
</tr>
</tbody>
</table>

---

表 1) 20세기 후반 채선에 나타난 성 개념 변화 요인
[그림 1] 성 개념 변화요인 간 구조 분석

기 시작한 시기[10]이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소비계층과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이상에 대한 감방으로 성의 장벽을 넘고자 하는 시도가 허위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4년 스토리트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Mary Quant에 의해 제시된 미니스커트는 젊음의 상징일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힘파리를 중심으로 남녀를 분문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불우진이 선호되었을 뿐 아니라 디자이너들도 여성복 아이템도 바지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는 페미니즘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기 시작한 때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학, 이분법적 사고를 근거로 여성신체를 인공적으로 변형시켜 여성의 형성하는 문화적 요구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고 남성과 같은 형태의 의상을 창출할 것을 권하였다[10]. 즉 남성화된 스타일을 통해 획득된 남성적 이미지로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획득하고 남성중심사고에 도전하며 남성의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851년 중세 이후 처음으로 바지스타일을 여성의 외의로 펼쳐져야 할 것으로 제안한 Amelia Bloomer 여사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고 하며 할 수 있으나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운동복으로만 착용되었었다[10]. 이후 1920년대에 성직대상으로서의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숙한 여성의 신체를 가능한 한 은폐시키고 활동적인 소년 같은 여성상을 표방하는 가르손는 스타일을 통해 구체화[10]되는 듯 하였으나 2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여성적인 라인의 옷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말았다[10]. 그러나 남녀평등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계열의 페미니즘 운동과 허위문화의 영향으로 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니섹스모드는 60년대 폭식의 가장 중요한 흔적이 되었고 이후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성 개념이 하위문화와 페미니즘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기업사회에 대한 반항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며 정치적 측면도 갈렸다.

2. 70년대의 목록
70년대 초에는 힘따운동에 이은 자연화귀의 복고
풍과 여성운동의 증가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심지어
안감이 없는 비구축적인 캐주얼 스타일이 유속하였으나 70년대 후반에는 남성복과 유사한 구조적인 형
태의 편안한 슈트 특히 패츠 슈트의 매니셔틱이 유속하였고 청소년집단에서 기존사회실내 미의
개념을 벗어난 패션패션이 유속하였다.
70년대 이후 평상복으로 정착된 패츠 슈트는 여성
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위한 실용적
의상으로 체택된 것인데 여성들의 남성복 스타일의
모방은 합리적·이성적·논리적·정신적인 남성적
특징을 남성과 공유하여 남성과 사회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의 남성복화가 오히려 남
성 중심식의 사고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남성의 우월성
을 강조하는 모습을 낳게되어 따라 70년대 후반부
터 남녀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쪽으로의 움직임도
시작되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정상화하면서 의상에서 여성다음을 강
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극적이며 패티즘을 표방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 특성이 그리고 생리적
기능이 남성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자신감과
관련된 것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감, 노출, 장식
적이고 화려한 다테일과 색상, 문양, 재질 등을 사용
한 디자인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때의 여성적 경
향은 과거처럼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
이 아니고 자기영역에서 자신감이 있고 있는 여성
들이 남성적 사고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즐기고
 رمض거를 느끼는 섹시한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복에도 영향을 미쳐
러블 장식, 자수, 선명한 색상과 문양, 메이크업, 긴
머리 등 여성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남성복의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안
함으로서 엔드로지니스의 쪽으로 발전해 가는 토대를
만델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남성적 요소를
채택한 것만을 여성적 요소나 소비한 것은 아
니다. 이는 여성의 역할변화가 남성의 역할변화보
다 더 급진적이고 역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의 성 개념은 보다 모호한 쪽으로
움직여 바지 스타일이 여성복 아이템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의료에서 성 차가 줄어들게 되었지만 70년대
말에 이르면 여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스타일도 동
장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남성적 스타일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섹스의 차가 곧 우
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식으로의 사고의 전
환과 함께 성 개념의 차로 과거처럼 두려울 필요가
있었음을 통해 평등을 주장할 필요가 증대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스 등의 하위문화에서
성 개념이 모호한 복식을 창출하는 경우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이 여전히 강하나 페미니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적 채택이 많이 줄어든 시
기라 할 수 있다.
3. 80년대의 복식
70년대 말부터 육구에 기초를 두 독자적인 생활
양식을 지향하게 되면서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분화
되기 시작했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일어난 에너지와
동,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은 패션이 생활실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각각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의생
활력도 보다 다양하게 여러 형식적인 흐름이 있다가
보다는 다양성이 공존하게 되었다. 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헤체바인가 상호 백스트레스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복식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에로서
패티즘운동과 양성성(androgyny)을 통해 남녀공
동의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양성성은 두 성으로 나뉘기 전의 궁극적인 존재
을 의미하는 데 육체적, 성격이기보다 신비적 측면
과 초점을 두 것으로 남향성-여향성을 양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속체의 개념으로 보고 양성의 2가
지 특성을 한사람이 흔히하여 소유할 수 있음을 인
정함으로써 인간의 전체범위의 감정과 역할능성
을 표현하도록 허용한다. 패션패션들이 양성성이
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로 대부분 관념적인 것으로는 거리의 평행선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엔드로지니스 혹은 이성선
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아이템들 자유롭게 교차
작용함으로써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완소해가고 시도
하였는데, 유니섹스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각자의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 709 —
맞은 자료로 인한 성장을 교차시켜 전체성을 추구한 다. 즉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을 초월하여 서로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면서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해어스탈과 메이크업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이 모호한 앤드로지니스 혹은 무성능도착(cross-dressing, transvestism)과 유사한 특성을 지 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두고 성적 동등함을 표현한다고 보는 성별에 대한 구분 자체를 부정리 드리기 위한 미묘한 성적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양성의 복식은 내부로부터의 해체에 의한 상호 토착성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80년대 이전의 양상화된 복식이 여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 80년대의 복식은 남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따라서는 디자인발상에서부터 신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는데, 특히 8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게 된 일본 디자이너들의 비구축적 디자인에는 성가 존재하지 않고 인간성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

또한 80년대는 여성 우주비행사까지 탐생하는 등 여성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 성역할의 차이는 더욱 줄어 의복을 통해 평등을 주장할 필요도 더욱 줄어들고 상황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복을 즐기게 되었다.

4. 90년대의 복식

90년대는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이 아닌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서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는데 이는 유니섹스나 앤드로지니스와는 미>())적으므로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유행의증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남성의 라인의 디테일이 치가된 재킷과 바지에 여성스러운 프릴과 레이스가 있는 블라우스를 메치시키는 방법 등으로 여성미와 남성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는 의복이 성을 구별해 주는 도구로 이용됨을 거부하고 의복의 사회적 상징성과 성 정체성의 정의로부터 해함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남녀가 독립은 의복스타일을 추구하는 60년대의 유니섹스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복을 공유하던 다른 성으로 입을
### 표 2 성 개념과 관련한 20세기 후반 패션의 변화양상

<table>
<thead>
<tr>
<th></th>
<th>60년대</th>
<th>70년대</th>
<th>80년대</th>
<th>90년대</th>
</tr>
</thead>
</table>
| 여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 | 철단의 문화 대두 (미나, 블루진 등) | 비지 여성평등용 복장 | 체제패션 등장 |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따른 의상환
| 남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 | 여성복을 근간으로 하는 중심적 이미지 추구, 여성성에 적합한 소비소비자 | 비주계적인 캐주얼 스타일 | 스타일의 연소화 | 주문형 스타일 디자인

그들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혼돈과 모호함으로 무엇이 남성다움이고 여성다음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타인들을 위해 옷을 입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가 성형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흥미와는 무관하게 자기만족적인 측면에서 옷을 입고 있다. 문제는 그 의복이 자신의 취향과 맞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의 취향과 맞지만 하면 기존과 상황에 따라 중성적인 혹은 양성적인 것은 물론 아울러 다양하게 섹시한 스타일에서부터 하단의 남성적 스타일까지 모두를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성의 성 개념과 관련한 20세기 후반 패션의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IV. 결론

성 개념이란 타인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는 관점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처부하는 기존의 성 고정관념은 20세기 들어 들어 60년대 이후로 성역할이나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여성복의 특화화로 하여 여성화장동, 하위문화, 해체주의, 테크놀로지의 발달, 후기자본주의의 시장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성역할 차이가 줄어들수록 여성들은 남성적인 요소들, 남성들은 여성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유사한 의류를 만들어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의류를 동일한 방식으로 입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다가 무엇이 남성적이고 여성적이라는 개별 차이는 성에 따라 다르다. 남성복 요소를 체택한 여성패션이나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남성과 여성의 선택과 선호가 줄어들수록 여성의 효과도 줄어 60~70년대에는 다툼 80~90년대에 있던 패츠는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기 위한 것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과다하기 위한 것도 아닌 단지 취향을 나타낼 뿐이다. 특히 90년대는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하는 것이 자주 존재하게 되었고 남성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야 한다.

남녀간에 유사한 의복을 추구하는 스타일들에 다탕 의미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남성 성역할 차이가 분명하던 60년대로의 유틸리티 모드는 이와 관련되는 하나를 남녀가 같이 입으면서 기존의 가치체계와 이론적 개념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담긴 것이었다. 70년대는 하위문화에서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가 여전하였으나 성역할 차이가 줄어 정치적 색채는 약해졌고 오히려 여성성을 강조하는 디자인도 많이 등장하였다. 80년대의 엔드로지니스 혹은 양성간에 구체적인 아이템을 상호교환해서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하나의 의복 안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는데 성역할 차이가 더욱 줄어들에 따라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희석되어 유틸리티가 완전히
표현방식 뿐 아니라 내적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90년대 동정한 켄더리스 쪽은 엄격한 남성복에 여성복의 부드러운 요소를 가미하거나 여성복에 남성복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철저하게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로서 성의 상호이미지의 흔적을 통해 자유로운 개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엔드로지니스 쪽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개성과 기분에 따라 자기자신을 위해 지키는 데 더 이상 정치적 의의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들 스타일은 복장의 억압의 개념을 도입한 점이나 저자들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유니섹스에서의 여성복의 남성화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엔드로지니스에서는 남성복의 여성화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에서는 스타일적 맛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여성적이었던 점에서 여성은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저자들에 의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성 개념이 변화함으로써 초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60년대는 성별차이와 함께 성 고정관념이 남아있음을 보여서 성 개념도 양분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이후 성별차이가 급격히 줄여들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조류로 인해 성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남성과 여성성을 양극으로 하는 연속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90년대 들어서는 개인의 성향 또는 취향이라는 관점에서 성 개념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적이 높은 사람은 여성성을 얻을 것임을 상정하는 연속체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남성성이 높다 할더라도 여성성이 높은 수도, 보통의 수도, 낮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적 특질과 남성적 특질 모두를 거의 소유하지 않은 중립적인 경우까지 포괄하여 성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개념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생물학적 성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반면 성 개념은 인간이 생물학적 성에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이다. 따라서 성 개념을 사회적 범주 중 하나라고 치부한 다면 성 개념의 수는 유한한 것이지만 의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에 부여하는 의미만을 다양화한 수의 성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이 가진다.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정도는 그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일 뿐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성과는 무관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에 따라 남녀가 같은 의복을 착용하여 성을 초월한 새로운 성을 나타내거나 둔이 구별되는 남녀 복식의 아이라며 메이크업으로 남성은 여성적인 것을, 여성은 남성적인 것을 용인시켜 이미지를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극히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옷 등 다양한 스타일의 복식을 볼 수 있다. 비록 실생활에서는 성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켄더리스의 시대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도 지속되어 앞으로는 의복에서 성 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

참고 문헌
2) 윤동복, 이은영, 홍성건 (1996), 복식문화, 교문사.


